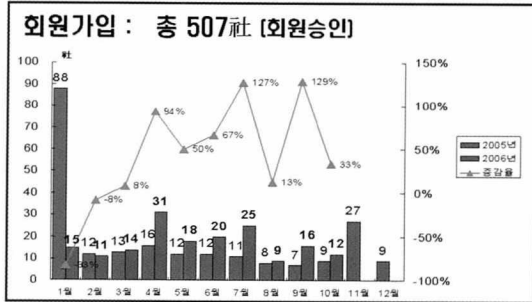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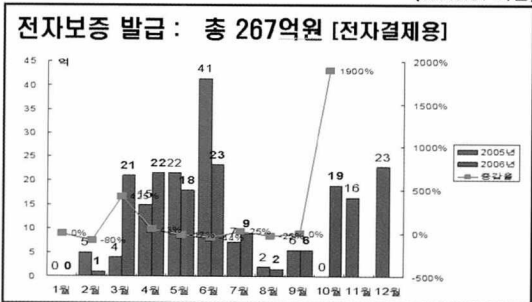


## 제지업계 전자상거래 꾸준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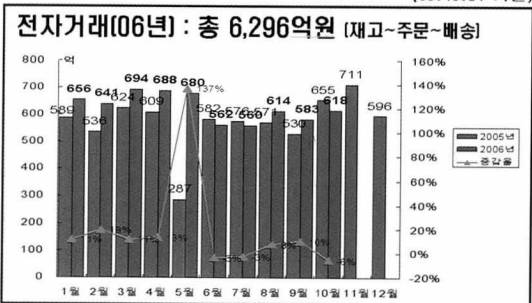
(06.10.31 기준)



(06.10.31 기준)



(06.10.31 기준)



제지업계의 B2B 페이퍼마켓 전자상거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0월중 B2B전자거래금액이 전년 동월의 655억원보다 6% 감소한 618억원에 그쳤지만 누계는 6296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실적인 5559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특히, 10월 중 전자결제금액은 전년동기의 43억원 대비 44% 증가한 62억원에 달했고, 10월말까지 누계 금액은 529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제지 B2B 페이퍼마켓(PMP) 총 가입자 수는 934개사, 승인되어 활발히 거래중인 회원사는 507개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은 267억원으로 이는 은행의 B2B대출한도로 발급, PMP 전자결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 한솔제지, 음이온·은나노 기술결합 뉴플러스 알파 출시

한솔제지는 12월 중순 음이온과 은나노 기술로 학습력을 높여 주는 MFC 뉴플러스 알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행본, 학습지, 각종 본문용지, 부교재 전문용지에 주로 사용될 뉴플러스 알파는 기존 뉴플러스지에 첨단 웰빙 기술인 음이온·은나노 기술이 결합되어 고급 인쇄 적성과 함께 학습력 향상, 피로회복, 항균 작용 기능을 가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능성 MFC이다. 신제품과 관련해 한솔제지 측은 "음이온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공기를 깨끗하고 신선하게 유지시켜서 상쾌함을 주는 공기의 비타민으로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 집중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은나노 기술은 99.9%의 강력한 항균 및 살균력을 지니며 탈취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 한국제지, ISO14001 환경경영인증 획득



온산공장내에 PCC(경질탄산칼슘) 제조설비를 병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행동지침을 전사적으로 확립하는 등 환경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해 온 한국제지가 지난 10월 17일 한국품질재단(Korea Foundation Quality)으로부터 ISO14001 환경경영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지 측은 "환경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경영 관련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정립 ▶국내·외의 환경법규 준수와 기업 스스로 설정한 환경방침, 환경경영프로그램 체계적 실행 ▶환경성과를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주주,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으로부터 환경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세계적 환경기준의 적응으로 무역장벽에 대한 공격적 대응 ▶작업환경 개선으로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 ▶폐기물 분리수거로 인한 재활용률 증가, 처리비용 감소,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제지업계 뉴스

## 무림, 새로운 CI 적용 차량 눈에 띄네



무림이 최근 새롭게 바뀐 CI를 적용, 도색한 배송차량이 고객들로부터 신선한 호응을 얻고 있다. 무림은 지난 7월 26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CI를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곤지암 물류센터와 수색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도색작업을 마쳤다. 이와 관련, 무림은 “고객들은 무림의 기업 이미지가 부각된 그린과 블루 컬러가 조화를 이룬 배송차량의 새 모습에 한결 산뜻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 무림 · 이엔페이퍼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 참가



무림페이퍼, 이엔페이퍼 등의 제지사 및 두성종이, 삼원특수지 등의 수입지 공급업체들이 지난 10월19일부터 29일까지 출판도시문화재단 주최로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센터에서 열린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파주북시티 국제 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파주북시티 책잔치, 파주북시티페스티벌 2006 특별전 등으로 진행됐다. 무림페이퍼, 이엔페이퍼, 두성종이, 삼원특수지는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 '종이의 경쟁력 2006' 특별전에 참가해 제지업계의 현황과 경쟁력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무림페이퍼와 이엔페이퍼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변경된 사명과 CI를 관련 업계에 알리고 종이의 산업적, 문화적 의미를 되짚어보며 출판업계와의 폭넓은 교류 방안을 강구했다.

## 한국제지, 동남아산 수입지와 경쟁

국내 복사용지 시장을 두고 토종 기업인 한국제지와 태국계 기업 더블에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복사용지 시장은 수입 복사용지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제지와 더블에이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18%와 17%이다.

더블에이는 2002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기존 방식인 기업 마케팅에서 탈피,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광고·홍보 전략을 통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국제지는 지난해 온산공장에 연산 17만톤 규모의 복사용지 전용 생산라인 PM4호기를 증설하고 올해 2월 고급 복사지 '하이퍼CC' 브랜드 선포식을 여는 등 브랜드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종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복사용지의 수요는 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복사용지도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유통망 확보전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제지, 서울국제문구전시회 참가

한국제지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사무용품, 팬시디자인 문구 분야 총 11개국 131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2006 서울국제문구전시회' (2006 SISFAIR)에 참가했다. 한국제지는 2006년 런칭 이후 판매 및 마케팅에 주력해 온 신제품 복사용지 '하이퍼CC'를 위주로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또한 '하이퍼CC'는 SISFAIR 2006신제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제지 측은 “서울국제문구전시회에서 한국제지의 전시부

스를 찾은 일반인에게 하이퍼CC 무료 샘플행사와 복사용지를 밝은 빛에 비추어 보는 비교 행사 등을 진행, 국내 유일의 친환경 복사용지 '하이퍼CC'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 신호제지, 이엔페이퍼로 명찰 바뀌



신호제지가 지난 9월 28일 정기 주총을 열어 회사명을 (주)이엔페이퍼로 변경하고, 11월1일부터 공식 사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NPaper(이엔페이퍼)'는 지구(Earth)와 자연(Nature)을 생각하는 친환경 대표기업을 상징한다. 사명 변경을 계기로 이엔페이퍼는 고객과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미래 기업으로 가치창조를 통한 무한경영 정신, 변혁을 리드하는 도전 정신, 신뢰와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기업 정신을 근간으로 삼아 "Top in Value"라는 슬로건처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제지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 이엔페이퍼 점자악보 종이지원으로 감사패 받아



이엔페이퍼가 지난 10월 28일 영산그레이스홀에서 열린 덕영재단 주최 '점자악보 출판기념회'에서 시각장애이용 점자악보

용지를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덕영재단은 1996년 설립된 후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이다. 1999년부터 매해 점자악보용 종이 전량을 지원한 이엔페이퍼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제작된 점자악보는 전국 13개 맹학교, 34개 점자도서관, 점자악보를 신청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

## 이엔페이퍼, 중앙연구소 오산공장으로

이엔페이퍼는 지난 10월 20일 중앙연구소를 신탄진공장에서 제품의 실수요업체가 밀집한 수도권과 근접한 장점이 있는 오산공장으로 이전했다. 이전과 함께 중앙연구소는 고객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품질개선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계성제지 신탄진공장 증·개축 공사 공정률 70%



계성제지는 지난 4월에 시작된 신탄진공장의 후처리 시설 증·개축 공사 공정률이 70%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후처리동을 확보하고 Double Cutter 1대 증설, 자동포장기 신설, 기존 후처리 설비의 공정개선 등에 172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아트지 생산량을 연간 2300톤 증산하고 자동포장기 신증설로 무선별을 향상과 성력화, 공정개선에 따른 효율화 등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손익 개선이 기대되는 이번공사를 통해 계성제지는 'TRIPINE' 신제품의 품질 안정화 및 고급화로 고급인쇄용지 수요자들로부터 상당부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26일에는 최낙철 회장과 최홍 부사장이 후처리증설 건설현장을 방문,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장장이 참석자 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